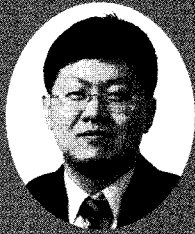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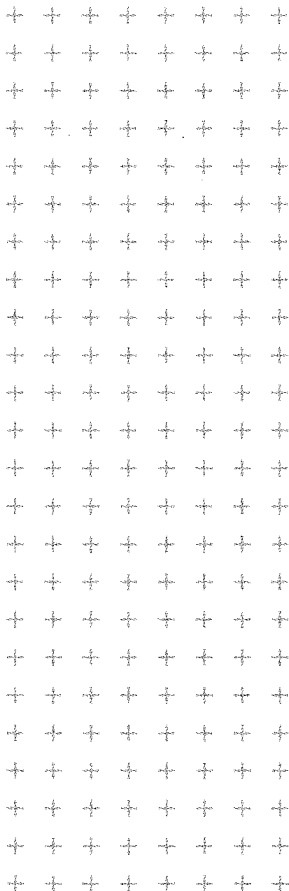
빠르게 변하는 사회

왕따에서 함께로의 희망



이한선
아트메디 디부, 성립외과 전장

옛날에는 함께 술래잡기나 딱지치기를 하고 놀았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자식의 또래와 비슷한 사람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왕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건강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요즘 아이들은 감나무에 감하나 남겨지는 이유를 알까?

옛날에는 학교가 끝나면 으레히 동네 아이들과 모여서 술래잡기, 딱지치기 같은 것을 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놀다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에 집으로 달려가곤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쳐다보다가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는다.

요즘의 아이들은 철을 따라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과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과 지는 해, 뜨는 해를 보지 못하며 어머니가 송아지를 핥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퇴비를 만들어 무, 배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며 비온 뒤에 걸리는 무지개를 알지 못한다. 추운 겨울 화롯불에 구워내는 고구마 맛을 알지 못하며 해질녘에 집집마다 올라가는 밥 짓는 연기를 본적이 없고 까치가 둥지 만드는 것을 본 일이 없으며 감나무에 감 하나가 남겨지는 까닭을 알지 못한다.

왕따, 비슷한 또래 보유하려는 심리에서 비롯

요즘의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서 눈을 열심히 돌리는 것과 부지런히 손가락을 눌러대는 것에 익숙하고 얼굴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죽고 죽이는 게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하는 것은 모니터와 텔레비전 속의 끊임없이 바뀌는 새로운 연예인들이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급변하는 전자 시대에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

따라서 왕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척박하고 황량한 교육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러나 이 시그널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 유학이나 끝내주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는 다시 예전의 마을들과 이웃들로 돌아갈 수 없는 듯이 보여 한없이 슬프기만하다.

미래희망을 위해 더 많은 관심 필요

그러나 필자는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가

지고 있다. 어머니들이 깨어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길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인터넷이나 PC방에 남겨두지 말고 동네마다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아이들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 유해 사이트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히 규제해야 마땅하고 나이에 따라 접속가능 사이트를 달리해야 한다.

사회가 열갑절로 복잡해졌으므로 어른들의 관심도 그만큼 커져야만 한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선과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듯하나 그 내면은 더욱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러기 가족이 되어서까지 아이들과 아내를 멀리 타국에 보내는 이들이 있으나 이 아이들은 결코 훌륭하게 자라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